

# 日本 電子業界의 現況

## 1. 엔高 극복의 결실

日本 20大 전자업체들의 매출이 1988년 3월에 끝난 회계년도에 9.9% 성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침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日本 20大 기업의 순수익은 35.4% 성장에 이르렀고 미국 회사들은 이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전자회사들은 日本보다 매출 규모에서 떨어졌으나 순수익은 이들을 훨씬 앞지르게 되었다.

지난해 미국의 20大 전자회사들의 순수익이 48.1%나 성장하였고 미국 회사들의 순수익은 총매출의 7.5%에 달해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과거 2~3년간에 걸쳐 일본의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의 성과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1인당 매출액도 일본이 10.1% 성장한데 비교하여 미국은 12.4%나 증가하였다.

또한 종업원 1인당 순수익도 일본이 38.1% 증가한데 반하여 미국은 4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 기업의 생산성이 일본보다 과거 2~3년간의 비교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1인당 매출과 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생산성 비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며 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빨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본의 생산성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종업원 1인당 일본인들의 매출액이 21万 1,400弗에 달해 미국의 2배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대기업 주위에 많은 子會社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총매출액 규모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高로 인한 달러 베이스 매출은 커졌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20大 회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은 1984년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매출액과 비교하면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미국은 1984년의 16%에 불과하다. 일본의 종업원 1인당 순수익은 5,000弗인데 반해 미국은 7,900弗에 달한다.

## 日本 電子業체들의 난관

일본 전자업체들은 엔화의 극심한 변화에 시달리면서도 미국 회사들의 매출 성장률을 따라 잡기에 이른 것이다. 엔화 베이스 전자 매출에서 9.9% 성장이라는 것은 미국의 20大 회사들의 12.5% 매출신장을 거의 육박하는 것이다. 2년전 엔高로 인한 수출둔화 현상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2년전 미국 회사들은 4~5% 성장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전자 매출의 9.9% 성장은 이들 기업들의 총매출 성장률 7.1%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高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Mitsubishi전기는 전자분야 매출에서 55% 증가하였고 OKI 전기는 19% 증가, Fujitsu 14% 증가, NEC와 OMRON사는 11% 증가, 「Hi-

순 위	업 체 명	전자부문매출액(US\$)	1986년대비 증·감률	종 업 원 수
1	Matsushita	28,500	+11	134,986
2	NEC	21,700	+11	102,450
3	Toshiba	17,100	+13	122,133
4	Hitachi	16,600	-6	157,015
5	Fujitsu	16,400	+14	94,812
6	SONY	11,700	+10	60,515
7	Mitsubishi	11,400	+55	74,008
8	SHARP	8,100	+12	53,493
9	CANON	7,300	+8	37,532
10	SANYO	5,700	-14	40,595
11	RICOH	4,400	+11	28,000
12	OKI	3,900	+19	20,140
13	TDK	3,200	+5	16,000
14	PIONEER	2,900	+3	12,990
15	NTT	2,900	+8	291,100
16	ALPS	2,800	+0	15,000
17	OMRON	2,400	+8	14,500
18	KYOCERA	2,100	+12	16,000
19	CITIZEN	2,000	+7	8,300
20	CASIO	2,000	+7	7,700
	TOTAL	173,100	2	1,307,269

tachi사는 전자분야에서 6% 감소, 전체매출에서는 3% 증가, SANYO사는 매출이 14% 감소하였다.

성장세가 되살아나고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로 인하여 일본의 20대 전자회사들은 더욱 커 보이게 된 것이다.

지금 일본에는 연간 매출 100억 달러가 넘는 전자회사가 7개社나 되고 20대 전자업체들의 1개社 연간 매출액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이 된다. 그리하여 일본 20대 회사의 매출규모가 미국 20대 회사들보다도 15% 더 많고 미국의 200대 전자회사들의 매출액의 58%에 육박하고 있다.

코스트 절감 노력에 힘입어 일본업체들은 지난해 수익면에서 35.4%의 성장을 이룩했다.

### 순수익의 기록적인 성장

日本 20대 전자업체 가운데 OMRON사는 수

익에서 579% 성장에 1억 6,600만 달러를 벌었고 OKI사는 144% 성장에 4,000만 달러, Mitsubishi사는 110%, SANYO사는 1억 4,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수출에 의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실을 본 유일한 회사가 되었다. 1달러당 10센트의 수익과 4센트의 순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극소수에 달했다.

일본내 전자통신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NTT사는 매출대비 15% 수익에 4%의 순수익을 올렸다. 전세계 세라믹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YOCERA사는 14% 수익과 7.5%의 순수익을 올렸다. KYOCERA사는 세계수익이 23.4%(금년 회계년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TDK사는 12% 수익증가와 4.5% 순수익 증가가 예상된다.